



2025 소다미술관 기획전시 보도자료

《Hello, World!_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

CONTENTS

《Hello, World!_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 전시 개요	3
전시 작품 소개	5
미술관 관람 안내 및 보도자료 사용 안내	12

소다미술관 공공예술 프로젝트

PUBLIC ART PROJECT

안마노
수수진
빠른손
김정환

조중현
정해지
정준기
오렌지 슬라이스 타입

2025.05.22-2025.07.20

포스트스탠다즈
프랙티스
에스오에이피
그라운드아키텍츠

<Hello,
World!>

! 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

↳ |

화성시  경기도 
2025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2025 소다미술관 기획 전시

《Hello, World!_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

안마노, 수수진, 빠른손, 김정활, 조종현, 정해지, 정준기, 오렌지 슬라이스 타입

포스트스탠다즈, 프랙티스, 에스오에이피, 그라운드아키텍츠

- 대중이 남긴 200여 개의 메시지 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8개의 목소리를 타이포그래피로
- 파빌리온과 웹 공간을 넘나드는 입체적 전시 구성
- 창작자, 미술관, 대중이 함께 만드는 ‘연결의 장’

소다미술관(관장 장동선)은 5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2025년 봄 기획 전시 《Hello, World!_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4년에 이어 소다미술관이 지속적으로 시도해 온 공공예술 실험의 확장으로, 관객과 예술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열린 전시 형식으로 기획되었다.

소다미술관은 2024년 “Hello, world!”라는 인사말로 시작해,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로 다음 문장을 채워 넣으며 만들어가는 공공예술 전시를 선보였다. 전시에 참여한 세 팀의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제안한 파빌리온은 명료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작은 미술관’이 되었다.

2025년 봄, 소다미술관은 그 실험을 한층 더 확장한 전시 《Hello, World!_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를 선보인다. 지난해부터 대중의 참여로 수집된 200여 개의 메시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을 건네는 시대의 목소리 8개를 선정해, 이를 시각예술가 8인의 생명력 있는 예술 작품으로 시각화한다.

전시는 8개의 작품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파빌리온과 무한한 연결 가능성을 지닌 웹 공간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예술가들의 작품은 두 차례에 걸쳐 야외 파빌리온에 게시된다. 관객은 변화하는 메시지와 공간을 따라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되며, 예술은 다시금 대중과 소통하며 세상과 연결되는 매개로 작동한다.

소다미술관 장동선 관장은 “《Hello, World!_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는 예술의 언어로 번역된 대중의 목소리가 다시 공동체와 공유되는 과정”이라며, “창작자, 미술관, 대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공예술의 장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빌리온 공간에서 타인의 메시지에 몰입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감각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는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 개요]

| 전시 제목: Hello, World!_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

| 전시 기간: 2025. 05. 22(목) – 2025. 7. 20(일)

| 전시 장소: 소다미술관 (야외 전시장)

| 참여 작가: 안마노, 수수진, 빠른손, 김정활, 조중현, 정해지, 정준기, 오렌지 슬라이스 타입
포스트스탠다즈, 프랙티스, 에스오에이피, 그라운드아키텍츠

[작품 소개_타이포그래피]

안마노, 〈이만하면 되었다〉,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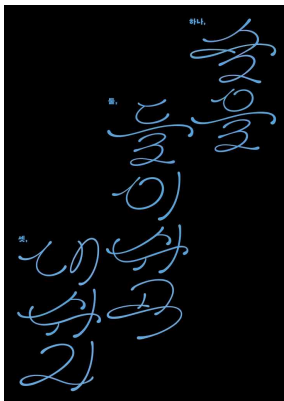
선정 목소리: 이만하면 되었다



한글의 새로운 표정을 찾는 것을 작업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안마노는 “이만하면 되었다”는 짧지만 단단한 문장을 통해 한글 고유의 형상과 정서를 드러낸다. 창작자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수없이 질문하며 나아가지만, 결국 멈춰 설 수 있게 해주는 말은 ‘이만하면 되었다’는 단순하고도 깊은 문장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창작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끊임없는 질문과 그 안에서 발견한 작지만 단단한 위로의 순간을 시각화한다.

정해지, 〈숨의 궤적〉, 2025

선정 목소리: 하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둘,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셋,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정해지는 숨 쉬는 행위를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하며 불안과 고요 사이의 리듬을 기록한다. 반복되는 문장을 흐름처럼 배열하고, 얇고 단정한 선으로 표현된 글자들은 말보다 조용한 감각에 집중하도록 이끈다. 감정이 부풀고 꺼지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가장 본질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된다. 문장이 곧 호흡이 되는 이 작업은, 공공 속에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만든다.

오렌지 슬라이스 타입, 〈To infinity and beyond〉, 2025

선정 목소리: 다 함께 저 너머로 가봅시다



오렌지 슬라이스 타입은 “다 함께 저 너머로”라는 메시지를 ‘저 너머로’의 모음 자인 ‘ㄱ, ㄱ, ㄱ’와 ‘ㄱ’를 방향 지시 기호인 화살표로 변환하며, 미래를 향한 연대의 움직임을 디자인 언어로 구현한다. 과거를 회고하기보다는 ‘지금’과 ‘다음’에 집중하는 태도는 반복과 리듬을 통한 시각적 표현 속에 반영되며, 낙관과 기대의 정서가 작품 전반을 이끈다.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 To infinity and beyond!

수수진, 〈살아가는 삶과 창조하는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예술이다.〉, 2025

선정 목소리: 살아가는 삶과 창조하는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예술이다.

살아가는 삶과 창조
하는 삶을 일치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
이고 예술이다.

수수진은 장식적인 요소를 모두 덜어낸 하얀 바탕 위에 검은 손글씨로 문장을 또렷이 새긴다. 창조하는 삶과 살아가는 삶을 일치시키려는 태도는 작품의 메시지이자 작업의 방식 그 자체다. 단순한 색과 형태, 글자가 가진 밀도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삶과 예술이 동의어가 될 수 있음을 담백하지만 명료하게 전달한다. 꾸밈없이 정직하게 쓰여진 손글씨는 오히려 더 깊은 공감과 울림을 전하며 메시지 자체의 본질에 다다르며, 무채색이 결국 모든 색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김정환, 〈LOVE wins ALL〉, 2025

선정 목소리: Love wins all.



김정환은 “Love ins all”이라는 문장을 다양한 문화권의 문자로 재구성해 시각화한다. 서로 다른 문자가 알파벳과 유사한 형태로 조합되어 시각적으로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전해진다. 이렇게 구성된 텍스트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해독 없이도 감각되는 언어의 힘을 보여준다. 문화적 기호들이 뒤섞이는 가운데서도 의미는 흐려지지 않고, 사랑의 메시지는 더욱 넓고 깊게 확장된다.

빠른손, 〈DIVERSITY WINS. BIGOTRY LOSES.〉, 2025

선정 목소리: Diversity wins. Bigotry loses.



“Diversity wins. Bigotry loses.” 는 “다양성이 승리하고 편협한 시각은 패배한다.” 라는 뜻이다. 빠른손 김도현은 이 문장을 무지갯빛 색상으로 구현하며, 다양성을 위한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움직임들을 시각화한다. 작품은 오랫동안 사회적 편견 속에서 외면받았던 이들의 권리가 점차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며, 세계 인권 선언의 전문을 바탕으로 각자의 존재가 존중받아야 할 이유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작가는 다양성을 삶의 전면에 내세우며, 무심히 지나쳐왔던 편견에 직면하는 시대의 목소리를 조형 언어로 힘 있게 전달한다.

7) 정준기,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2025

선정 목소리: 누군가 널 위하여.



정준기는 새벽마다 기도를 올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을 “누군가 널 위하여” 라는 텍스트로 기록한다. 작업 배경에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이를 떠올리는 작가의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담겨있다. 글씨체로 선택한 덕온공주의 『자경전기』는 조선 왕실의 효심이 담긴 한글 문서로, 작가는 이것의 흩어진 글자들을 모으는 ‘집자’의 행위가 마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행위와 닮아있음을 상기시킨다. 작품은 고요한 새벽 기도처럼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마음’ 이 모두에게 와 닿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건넨다.

8) 조중현, 〈Peace〉, 2025

선정 목소리: “평화(Peace)!”



조중현의 작품은 “Peace” 라는 단어를 통해 오늘날 인공지능과 기술기업이 가진 권력 구조를 드러낸다. 각 글자는 팔란티어(Palantir), 딥시크(DeepSeek), 아마존 웹 서비스(AWS), 클로드(Claude) 등 군사용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대응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동의되지 않은 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각화한다. 작품은 기술이 지닌 힘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평화’ 라는 단어가 여러 권력과 조건 속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 기술 사회의 윤리와 통제 문제를 깊이 성찰하게 한다.

[작품 소개_파빌리온 1]

[파빌리온]

포스트스탠다즈, 〈Stratum〉, 2025



포스트스탠다즈, 〈Stratum〉 (소다미술관 제공)

포스트스탠다즈는 구조물 자체에 공동체적 메시지를 담는다. 파이프가 서로를 지탱하며 구성하는 형태처럼, 이번 파빌리온은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모여 함께 존재하고 조화를 이루는 장을 만든다. 작품은 예술의 언어로 번역된 대중의 목소리가 다시 공동체와 공유되는 과정을 구조적 조형 언어로 구현하며, 전시에서 지향하는 공공예술의 의미를 공간적으로 풀어낸다. 파빌리온은 물리적 구조이자 공동의 울림이며, 전시에 참여한 여덟 개의 메시지를 매개로 서로가 서로를 듣고 지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한다. 관객은 이 안에서 타인의 목소리에 몰입하고, 서로의 감정을 경청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감각을 확장해 나가게 될 것이다.

[타이포그래피_포스터 현수막]

- 1) 안마노, 〈이만하면 되었다〉, 2025
 - 2) 정해지, 〈숨의 궤적〉, 2025
 - 3) 오렌지 슬라이스 타입, 〈To infinity and beyond〉, 2025
 - 4) 수수진, 〈살아가는 삶과 창조하는 삶을 일치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예술이다.〉, 2025
 - 5) 김정환, 〈LOVE wins ALL〉, 2025
 - 6) 빠른손, 〈DIVERSITY WINS. BIGOTRY LOSES.〉, 2025
 - 7) 정준기,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2025
 - 8) 조중현, 〈Peace〉, 2025
-

[작품 소개_파빌리온 2]

[파빌리온]

에스오에이피, 〈Unknown〉, 2024



빠른손_〈DIVERSITY WINS. BIGOTRY LOSES.〉, 안마노_〈이만하면 되었다〉,
에스오에이피_〈Unknown〉. (소다미술관 제공)

에스오에이피의 파빌리온 〈Unknown〉은 X자로 교차된 가설재 구조를 통해 텍스트 게시대이자 공간 경험의 통로로 기능한다. 관객은 텍스트로 시야가 차단된 구조를 지나며, 끝에서 자연 풍경과 마주하는 감각적 전환을 경험한다. 이 파빌리온은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설렘을 상징하며, 땅을 딛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사람의 형상을 통해 삶을 향한 질문과 태도를 표현한다. 건축가는 이를 통해 세상이 곧 예술적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관객이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파빌리온의 현수막은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작품으로 교체되며, 첫 번째로는 안마노, 빠른손 작가의 작품이 게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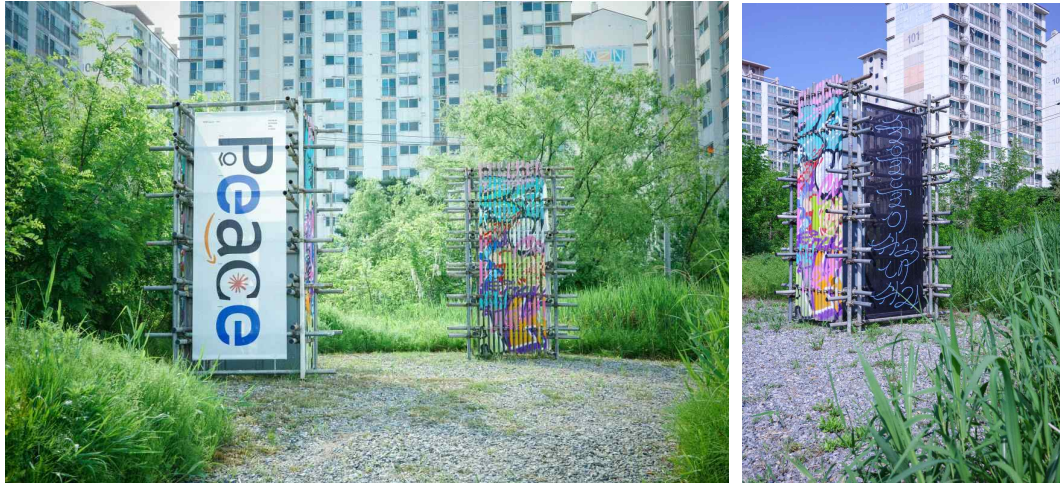
[타이포그래피_현수막]

- 1) 안마노, 〈이만하면 되었다〉, 2025
 - 2) 빠른손, 〈DIVERSITY WINS. BIGOTRY LOSES.〉, 2025
-

[작품 소개_파빌리온 3]

[파빌리온]

그라운드아키텍츠, 〈보이지 않는 선명함과 보이는 흐릿함〉, 2024



조중현_〈Peace〉, 정해지_〈숨의 궤적〉,
그라운드아키텍츠_〈보이지 않는 선명함과 보이는 흐릿함〉. (소다미술관 제공)

그라운드아키텍츠는 아연 도금된 가설재의 순환적 생애에 주목하여, 도시의 소통 구조를 반영한 두 개의 파빌리온 〈보이지 않는 선명함과 보이는 흐릿함〉을 제안한다. 하나는 수직 구조로 조립되어 집단의 뚜렷하지만 이기적인 메시지를, 다른 하나는 수평 구조로 해체되어 전달되지 못한 개별의 목소리를 상징한다. 건축가는 가설재의 조립과 해체 과정을 통해 집단과 개인, 소통과 단절 사이의 도시 풍경을 건축적으로 풀어내며, 파빌리온은 전시 이후에도 또 다른 형태로 순환될 예정이다.

파빌리온의 현수막은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작품으로 교체되며, 첫 번째로는 조중현, 정해지 작가의 작품이 게시된다.

[타이포그래피_현수막]

- 1) 조중현, 〈Peace〉, 2025
 - 2) 정해지, 〈숨의 궤적〉, 2025
-

[작품 소개_파빌리온 4]

[파빌리온]

프랙티스, 〈Sublimity of Figures | 숭고한 형상들〉, 2024



프랙티스_〈Sublimity of Figures | 숭고한 형상들〉. (소다미술관 제공)

프랙티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속 고정된 자연녹지의 장소성에 주목해 파빌리온 〈Sublimity of Figures | 숭고한 형상들〉을 제안한다. 가설재 벤치와 체인 외벽으로 구성된 구조물은 시각, 청각, 공간의 경험을 유도하며 관객을 자연과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체인 사이로 스며드는 빛과 바람, 재료 간의 충돌 소음은 장소에 대한 감각을 환기시키고, 도심과 자연, 인공과 숭고함이 교차하는 경험을 통해 관객 내면에 자연의 존재를 각인시킨다. 길고 좁은 전이 공간을 지나서 만나는 텍스트는 소다미술관에서 수집한 대중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미술관 관람 안내 및 보도자료 사용 안내

[관람 안내]

| 관람 시간: 수요일 - 일요일, 11:00 - 18:00 (입장 마감: 17:00)

| 휴관: 매주 월요일 · 화요일 휴관

| 위치: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707번길 30, 소다미술관

| 관람료 : 무료

| TEL: 070-8915-9127

| WEB: www.museumsoda.org

| MAIL: museum.soda@gmail.com

[보도자료 다운로드 안내]

- 보도자료 한글파일과 포스터 이미지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에 업로드된 전시 설치 전경 사진은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임시 사진으로,

정식 사진은 5월 29일 전시 촬영 이후 동일한 링크를 통해 추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링크) : https://bit.ly/2025_helloworld (크롬이나 internet explore 9 이상에서 사용)

* 보도자료 내 이미지의 경우 사용 시 작품 정보 및 저작권 정보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다미술관 제공)

* 보도자료와 관련해 상세한 정보 제공 요청 및 문의 사항이 있으면 소다미술관

(070-8915-9129)으로 문의주십시오.